

불황에...쇼핑 한번지 '홍물 빈점포' 어찌할꼬

충장·금남로 50여곳 전단지 덕지덕지·쓰레기 수북...이미지 타격
광주시 부서간 이전에 미관 개선 위한 한전 배전스테이션도 지지부진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 쇼핑 1번지 '충장로'에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급증한 빈점포가 방치되면서 광주 도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짙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4-5년 동안 방치된 빈 점포는 유리창 너머로 각종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으며, 외부에는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와 테이크아웃 커피 컵 등 각종 쓰레기가 쌓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궁전제과'의 경우 바로 옆에 6층짜리 건물이 5년째 방치되면서 '도심 속 유령의 집'이라는 좋지 못한 별칭까지 붙는 바람에 덩달아 이미지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외지인 방문이 많은 충장로의 경우 방치된 빈점포에 대해선 광주를 홍보하는 문구나 그림 등이 있는 가림막을 설치해 내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본적인 미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충장로 1-3가, 금남로 1-3가 일대 3.5km 구간에는 비어있는 점포는 60여 곳에 이르렀다. 20여m 마다 빈점포 1곳이 보일 정도였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건물 1층 빈점포도 30여 곳이나 됐다.
상가는 물론 금남로 발달 밀집 지역에도 '임대 문의'라고 써진 대형 현수막이 붙어진 대형 건물만 10여 곳이나 됐다. 빈점포는 대부분 외벽이 대형유리로 돼 있어, 널브러진 집기와 쓰레기 등이 있는 내부가 고스란히 내비쳤다.
빈 점포의 외부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대형유리 외벽에는 예외 없이 '임대 문의'와 공인중개사 연락처가 담긴 광고를 비롯한 공영·의류 세일·신장개업 음식점 포스터가 지지분하게 붙어 있었다.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즐비했다.

특히 궁전제과 바로 옆 '구아웃백' 건물은 5년째 방치돼 충장로 대표 홍물이 된 지 오래다.
해당 건물과 부지는 한전이 지난 2017년 6월 '배전 스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광주시 내부에서 부서간 업무이전으로 수년째 관련 사업이 지연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과 광주시는 민선 6기 때인 2016년 10월 충장로 미관 개선을 위해 충장로 일대 변압기 33대를 한 곳으로 모으는 '배전 스테이션'을 건설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관을 인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시 에너지산업과와 청년정책과가 수년째 대립해 온 것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에너지산업과는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 센터를 담당하는 청년정책과는 한번 설치되면 철거가 어려운 영구시설물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행히 민선 7기 들어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 현안회의에서 청년정책과가 한발 물러서며 조만간 설계유역을 앞두고 있지

만, 배전스테이션 건립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미관정비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장로의 한 상인은 "손님이 없다 보니 최근 1층을 중심으로 빈 점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년 넘게 장사를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면서 "빈 점포가 한 두 곳이 아니다 보니, 도심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충장로 상권 붕괴 등을 우려해 지난해 9월부터 교수·상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특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충장로 일대 빈 점포를 채우기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책 수립에 고인이 많다"며 "환경개선·간판정비·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에 우선 집중하고 광주시와 함께 충장로·금남로 일원 패션·뷰티 전문 쇼핑거리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광주·전남 3만7000명 집단 손해소송 이틀동안 71명 신청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집단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한 피해자는 광주·전남에서만 3만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강제징용 피해 인정 건수는 2015년 12월 기준 3만7493건이다. 광주에서 피해 신고와 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46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무자 동원이 2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 912건, 군속 882건 순이다.
전남의 경우 모두 3만2829건 가운데 노무자 2만3715건, 군속 4912건, 군인 3950건이다.
전국에선 모두 21만8693건으로 이 중 68%인 14만8961건이 노무자로 징용됐

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5일부터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가 시작된 지 이틀 동안 모두 71명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을 마쳤고, 2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 또는 전화로 참여 방법 등을 문의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청 1층에 접수처를 마련해놓고 내달 5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피해자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위헌법률 심판 신청 인용결정

현재 판결까지 선거법 위반 재판 중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낸 '위헌법률 심판' 신청이 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의 핵심 쟁점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정치활동의 인정 여부다. 지난해 10월 김 구청장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정치활동을 위법으로 봤다. 이 때문에 당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김 구청장과 직원이 행한 당원모집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게 1심 재판부의 논리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지방차량영업소 직원인 A씨가 '공직선거법 60조1항5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직급이나 직무 성격에 대한 김

토없이 공공기관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 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광주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은 현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다른 공기업 직원이 정치활동 합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당원 모집'을 놓고 김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향후 판결도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삼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구청장에 대해 2번씩이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었다. 김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공천 컷오프까지 탈락했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공천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당선됐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수뢰 혐의' 검찰 소환

전주지검이 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27일 불러 조사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도의회가 250만원을 지원했고, 송 의장은 의원부담 100만원 중 5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송 의장은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 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며 "따로 돈을 챙기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 의장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장현 전 시장 재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왜곡 규탄 홍보차량 5월18일까지 운영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홍보차량에는 120인치 LED 스크린을 탑재해 최근 공개된 미공개영상을 포함한 5·18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영상을 방송한다. 또 차량 외부에는 '5·18 정신 모독행위 즉각 중단하라', '5·18정신 모독

하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5·18 모독 망언의원 제명' 등의 문구를 적어 5·18역사 왜곡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을 단죄하겠다는 선명한 의지를 담았다.
홍보차량은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광주송정역·광천유스퀘어터미널 등 교통요충지와 광주지역 주요 대학, 캠퍼언스필드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할 계획이다.

네일숍 비용 놓고 다투다 쌍방폭행한 연인 나란히 경찰서행

○...30대연인이네일숍 손톱관리 비용을 놓고 다투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네일숍 앞에서 여자친구인 B(30)씨와 손톱 관리비용을 놓고 말다툼 끝에 쌍방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연인관계인 A씨

와 B씨는 네일숍 비용 문제로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차 밖으로 나와 서로 밀치고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관계자는 "A씨가 여자친구의 손톱관리 비용을 1만5000원정도 생각했는데, 4만5000원이 나오자 깜짝 놀라 다툼을 벌인 것 같다"며 "정착 손톱관리 비용은 여자친구인 B씨가 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왕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